

외향국화 - 서서, 방통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는 외향국화

방통은 주유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으로 연기한다. 장간은 방통을 데리고 조조에게 투항하게 된다. 주유의 계략에 의해 장간은 방통을 조조에게 데리고 가게 된 것이다. 방통은 조조의 군함들을 한데 모아 화공으로 섬멸할 계책을 실행하기 위해 스파이로 조조에게 투항한다. 방통의 연기는 대단했고, 조조의 예리한 분석력도 방통의 연기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방통은 조조가 오나라를 점령하면 자신의 가족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확인서까지 달라고 부탁하여 조조를 완전히 속인다. 방통은 선상에서 벌어진 파티에서 배 멀리를 하는 척했다. 조조의 입에서 배 멀리하는 병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조조는 방통에게 어떻게 하면 병사들이 배 멀리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방통은 군함들을 30에서 50척씩 모아서 쇠사슬로 서로 연결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면 군함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배를 서로 모아 화공을 가했을 때 쉽게 불이 번지게 하기 위한 연환계(連環計) 계략을 발휘한 것이었다. 외향국화 기질의 열정과 역발상적 아이디어가 조조에게 먹혔다.



방통의 이런 계책을 서서는 간파하고 있었다. 방통이 돌아가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서서는 방통을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방통의 계략을 조조에게 알리는 대신 서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방통과 함께 계획하게 된다. 서서는 비록 조조의 꿈에 빠져 조조 진영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유비에게 일편단심이었던 것이다. 서량의 마등과 한수가 조조가 없는 틈을 타서 수도인 허도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조조가 고민할 때 서서가 자원하여 허도로 돌아가 마등과 한수를 물리치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서는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외향국화

주유가 죽자 노숙은 방통을 손권에게 추천한다. 하지만, 손권 앞에선 방통의 태도는 보통 다른 사람과 달랐다. 내향매화 기질의 손권이 보기에 그는 건들거리고 방자하고 거만했다. 손권은 방통의 예의 없는 태도에 분노했고, 방통을 내어 쫓고 관직을 주지 않았다. 방통은 자신의 재능을 몰라주는 손권에게 실망하여 조조에게 가려했다. 그러자 노숙은 조조에게 가지 말고 형주의 유비에게 가서 자신의 재능을 살리라고 권고해 주었다.



그리하여 주인 잃은 방통은 유비에게 가게 된다. 유비는 방통에게 뇌향현의 현령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방통은 일은 돌보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다. 유비는 장비를 시켜 뇌향현에 방통을 감찰하도록 했다. 장비가 방통을 방문하자 방통은 쌓인 일을 하루아침에 후다닥 처리하는 괴력을 보인다. 장비가 볼 때 방통은 능력 있는 괴짜였고 자신보다 더 술을 좋아하는 주당이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시시하고 답답하여 일할 맛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장비가 방통의 능력을 보고 유비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추천했고, 제갈량 역시 방통을 추천하여 군사중랑장으로 임명 받게 된다.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외향국화

촉나라에 입성한 유비는 촉나라의 군주인 유장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이 때 방통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위연을 시켜 유장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다. 유장을 파티에 초대한 후 위연으로 하여금 칼춤을 추다 유장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것은 유장 부하 장수들의 알아차림으로 실패한다. 유비가 머뭇거리는 사이 방통은 자신의 열정으로 앞선 행동을 했다.

제갈량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방통은 유비를 제촉하여 서촉의 수도인 성도를 향해 진격했다. 유비는 악몽을 꾸었고, 불길한 예감에 평탄한 북쪽 길은 방통이 가게하고 험난한

남쪽 길은 자신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 방통의 말이 날뛰어 방통은 낙마한다. 걱정이 된 유비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백마를 방통에게 주고 자신은 다른 말을 타게 된다. 그런데, 촉나라 군대는 유비군대를 저지하기 위한 필살의 매복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촉나라 군대는 봉황이 추락할 만큼 깊은 계곡인 낙봉파라는 계곡에서 매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에 따라 백마를 탄 유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결국 유비의 백마를 탄 봉추 방통이 죽고 만다. 별명이 봉추(鳳雛-새끼봉황)였던 방통은 봉황이 떨어지는 낙봉파(落鳳坡)에서 죽게 된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